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소비·투자 살린다

올해 성장률 0.8%로 내리고 경기 부양…환율도 1300원대 안정
미국과 금리차 2.0P로 확대…외국인 자금 유출 등 우려 제기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세 네 번째 인하 결정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증가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도,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로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역성장한 상황에서 미국 트

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의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8개월째 동결됐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난해 11월, 올 2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등 환율 불안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말 한은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했다는 발표 이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기됐고 이번 금통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4.25~4.50%)과의 금리 격차가 2.00%p로 벌어지면서,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됐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건 2020년 8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0.2%에서 -1.3%로 1.1%p 낮춘 이후 5년만이다. 이밖에 한은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대부분 경제 지표 전망치 역시 낮췄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 설비투자 증가율은 1.8%로 전망했는데 지난 2월 전망치 대비 각각 0.3%p, 0.8%p 낮은 수준이다. '건설한파'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2.8%에서 -6.1%로 대폭 하향됐고, 재화수출과 재화수입도 각각 1.0%p, 0.9%p 하향 조정됐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1.8%에서 1.6%로 0.2%p 낮췄다. 이는 미국의 기준 관세율 10%, 품목 관세율 25% 등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올 하반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추가 부고를 고려한 수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향후 '관세 줄다리기' 양상 및 우리나라의 대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등 각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도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수치를 유지했고, 내년 전망치는 기존 0.1%p 낮은 1.8%로 예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매출 피해액 3300억원 달해

광주연구원 '손실 추정·대응과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매출 피해액이 33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국내 연평균 생산량의 45% 비중을 차지하는 광주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액은 3375억 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포함 노동자 2350명의 휴업 임금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총급여액이 625억98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 급여 감소에 따라 광주지역 소비 감소 등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내 연간 4500억원의 생산 감소와 연간 1551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연간 2218명의 취업자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공장 급여총액 감소로 인한 추정 소비 감소액도 427억 2300만원에 달한다. 지역 내 산업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422억원, 도소매업 164억원, 운송서비스업 117억원, 음식점·숙박서비스업 88억원, 산업용 장비 수리업 67억원 등의 생산 감소가 추정된다. 올해 광주 실질 경제성장률도 0.32% 하락해

1.08~1.38%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타이어 산업은 광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 간 연관도가 높다"며 "지역화폐 발행액 증액, 생산품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 정상화가 시급하며 공장 이전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세계 최초 수소 활용 SF6 분해센터 준공

철도공단 등과 수소 활용 협약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9일 "세계 최초로 수소 활용 육불화유황가스(SF6) 분해 및 무해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경기도 의왕시 국가철도공단 부지에서 '수소활용 SF6 분해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한국서부발전,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와 '수소 기반 국가 전력 및 철도 인프라 활용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행사에는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엄경일 한국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김윤양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장, 정한구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산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과 '불소'의 화합물인 SF6은 뛰어난 절연성능으로 전력설비인 개폐기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만 3900배에 달해 온실가스 발생 주범으로 지적받아왔다.

한전은 현재 전력설비 내 6000 t 이상, 국가철도공단은 383 t 가량의 SF6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SF6을 친환경 가스로 대체하는 등 전력설비를 전환할 계획이다. 한전은 친환경 전력설비 대체 과정에서 SF6의 처리를 위해 2020년부터 SF6 분해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고농도 SF6을 수소열원을 사용해 유해물질을 무해화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한전은 이어 2024년까지 기초실험을 통해 실증설비 설계를 완료하고, 연간 최대 60 t의 SF6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도 구축했다. 올 4월까지 설비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SF6 분해율 99% 이상 및 유해가스 제어 등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이번 설비는 세계 최초의 수소를 활용한 SF6 분해기술 상용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전은 올해 관련 기술을 최적화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철도공단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SF6을 본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미 관세정책에 한국 자동차 최대 타격

한은 분석...기아 등 예의주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대(對)미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분석에서 미국 관세율은 현재 유예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됐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자동차의 타격이 큰 것은 대미 수출 비중

(2024년 47%)이 클 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같은 시나리오에서 GDP 재화수출과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연 0.3%, 1.4% 각각 뒷걸음질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금속도 미국 시장 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25%로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GDP 재화수출에서 연 0.2%, 대중국 수출(물량)에서 연 0.5%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의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 경제계 곳곳 대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광주 경제계 곳곳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유행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29일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광주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완성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내 게시판, 메일, SNS채널 등을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에서는 ICT·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GICON이 먼저 릴레이를 시작하

고, 협력 ICT·콘텐츠 기업들이 참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ICON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릴레이를 시작하고, 지역민과 기업 구성원 등 모두에게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0.64 (+50.49)
▲ 코스닥	736.29 (+7.50)
▲ 금리 (국고채 39년)	2.341 (+0.027)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73.40 (-3.10)



광주신세계 '이스터 서울' 팝업스토어 29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이스터서울'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휘낭시에와 티그레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 12일까지 구움과자 디저트 전문 브랜드 이스터서울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피스타치오 티그레'와 '솔티드 카라멜 휘낭시에', '애플시나몬 크림을 휘낭시에'가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80만쌍 육박...월 최고 543만원

월평균 합산 연금액 111만원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말 35만5000쌍 ▲2020년 말 42만7000쌍 ▲2021년 말 51만 6000쌍 ▲2022년 말 62만5000쌍 ▲2023년 말 66만9000쌍 ▲2024년 말 78만3000쌍 등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80

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천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각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쪽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연합뉴스

5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94.7, 전월 대비 8.8P 상승

광주·전남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광주·전남 CCSI는 2022년 5월부터 3년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민들은 여전히 지역 경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면 광주·전남 CCSI는 94.7로 전월(85.9) 대비 8.8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CCSI(101.8)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광주·전남 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1달 새 12.1p 급락한 79.4를 기록한 뒤, 올 상반기에는 83~87수준에서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이달 들어 5·18민주화운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소비심리가 일부 살아나면서 6개월 만에 90을 돌파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CCSI는 여전히 장기평균치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지역민들이 지역경기를 낙관적으로, 낮으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광주·전남 CCSI는 2022년 5월 102.3을 기록한 이후 36개월 연속 장기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민들은 3년 내내 지역 경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대표 지수별로 보면 현재 생활형편(+0.5p), 생활형편전망(+2.6p), 가계 수입전망(+1.9p), 소비지출전망(+0.7p), 현재 경기판단(+0.7p), 향후경기전망(+2.5p) 등 모두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